AI 이노베이션 레포트

21600685 조예성

실제로 기업들이 AI기술을 도입하는 데에는 여러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다. 앞서 다루었던 ROI도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전반적인 사항들을 전부 고려해야만이 AI 기술을 도입하는 데 예상되는 어려움들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술 자체가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과 온전히 일치해야 한다. 이는 조직이 갖는 기존 주력 사업과 추구하는 방향과 잘 어우러져야 함을 의미한다. A라는 사업을 하는 조직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은 A라는 사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도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 아이러니를 낳게 된다. AI, 데이터 기술은 철저히 슈퍼 서브의 느낌이지 기존 기업이 갖고 있는 메인 사업을 제끼고 메인의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면 AI기술의 도입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국 이는 얼마나 AI기술이 조직의 문화와 잘 호환되는 지의 여부에도 관련이 있게 되는데, 아무리 조직의 방향과도 잘 맞아도 이것이 실무를 맞는 조직원들과의 문화적인 융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AI기술의 도입이 어려워지게 된다. 가령 데이터 과학자와 영업직 직원과의 프로젝트를 위해 협업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양측 다 서로 소모만 일고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쪽, 도입을 받아들이는 쪽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잘 고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조직원 자체의 AI 기술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AI기술이 최종적으로 기업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메꾸어주고 사업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면 AI기술은 기업 내에 온전히 체화되어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미 수 많은 머신 러닝 기법들은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뽑아주는 것 외에도 많은 자동화기법을 통해 우수한 모델을 추출하고 있다. 일래스틱넷, 다변량 회귀 스플라인 같은 회귀분석 시 우수한 피처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모형이나, 수많은 최적화 알고리즘 등은 이미 인공지능 자체가 더 나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공부하고 나아가야할지..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괜찮을 지에 대해 한번 깊게 고민해보아야 하는 이슈가 아닐까 싶다.